

[목회자 모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2018년 4월 6일 이현래 목사님

오늘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서 이삭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금 찾고 있고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문적인 일인 것 같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람을 지으시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고, 찾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을 볼 때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으로 보면 복음이 된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다른 것은 헛갈릴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많지만 이 중심만 보고 성경에서 찾으면 복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복이다.

사람을 지은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고, 심지어 잃어버렸던 것까지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찾으시면 더욱 축복이 된다. 복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좀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다. 다른 것은 제쳐놓고 이 중심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복이 아닌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렇게 놔두고 있고, 왜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배가 터지게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다 모른다.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데, 어떤 곳은 저렇게 배가 고파서 애기를 낳고도 애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땅이 있는가 하면, 미국 같은 곳은 너무 많아서 살 빼느라고 약을 쓰고 뛰어다니는 짓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불공평한가? 이런 말이 나온다. 우리가 그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될 수 있는 것을 얻으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찾아서 당신이 또 복을 주신다는 것만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가 전부 복이다.

불교 말로는 말이 맞지 않는데, 나를 찾는다고 한다. 불교에서 찾는 나와 내가 늘 말하는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는 나는 다른 것 같다. 그 '나'가 '내가 아니고 다른 '나' 같다.

십자가에서 발견한 나는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다. 또 생각하기 싫은 나다. 그런 나는 찾기가 싫은 나고, 다시 생각하기 싫은 나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았다는 말이다. 알고 보면 우리 생각에 없는 나다.

불교에서 찾는 나는 생각하면 있는 나다. 결국 내 속에 있는 나다. 껍데기만 벗기고 나면 나오는 그런 나이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전혀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불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쳐다 보면 아니다. 다른 것을 찾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바꾸어서 나를 찾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큰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이루려면 어떤 통로가 있어야 약속이 이루어진다. 길이 있어야 된다.

배급을 받으려면 쌀자루가 있어야 배급을 받는다. 물이 흐르려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다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통로가 안 된다. 물이 흐를 수가 없고 생명이 분배될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눈이 밝아져서 전능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하나님에게서 흘러 올 것이 막혀버렸다. 길이 다른 데로 가버린 셈이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구원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속이라 할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면 내가 이러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물이 흐를 통로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흐를 통로를 찾고 있다.

알고 보면 인간은 지금 다른 것을 찾고 있다. 그 통로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찾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엉뚱한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아무 것도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라면 하나님이 찾아올 텐데 우리가 먼저 알고 설치니까 다른 것을 찾는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시험지에 1번만 쪽 쓰거나 2번만 쪽 체크하면 될 텐데, 머리를 굴려서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하니까 하나도 맞지 않았다. 우리가 꼭 그런 셈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은 버리고, 정해놓지 않은 길만 일부러 찾아가니까 축복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도 망한 사람을 보면 꼭 망할 길만 찾아 다닌다. 흥한 사람을 보면 꼭 흥할 길만 찾아 다닌다. 길이 있는 것 같다. 안 될 것만 찾는 사람이 있고, 될 것을 계속 찾는 사람이 있다.

그런 데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나왔다. 아무래도 통계상으로 보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성공하지 못하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설교도 많이 하고 유명

한 사람이 책도 썼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를 찾았다고 할 수는 없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찾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치가 그렇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삭에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종으로 키운 엘리에셀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런데 둘 다 아니라는 것이다.

엘리에셀을 생각한다면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까 내 생명이 섞이지 않았으니까 물질이나 마찬가지로 말이다. 이스마엘로 말하면 내 피가 섞이긴 섞었는데, 잘못 섞인 것이니까 혼돈이 되게 된다.

이것을 로마서 있는 말로 한다면, 엘리에셀은 육에 속한 것이고, 이스마엘은 혼에 속한 것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롬7:24).”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의 다른 법이 있어서 안 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된다. 구조적으로 안 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롬7:24).”라고 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혼에 속한 사람이다. 삼분설로 말한다면 혼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오면 갑자기 바뀌어져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1~2).”고 큰 선언을 하게 된다. 이것은 혼에 속한 세계가 발전해서 좋아했다는 말이 아니고, 전혀 다른 세계라는 뜻이다.

옛날에 내가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는 기분은 좋았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는 그 세계에서 방황하다가 갑자기 8장에 오면 너무 밝은 말이 나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그 말이 얼마나 좋던지! 정죄함이 없다고 하니 너무너무 좋았다.

그런데 그 다음이 안 되는 것이다. “생명의 성령(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가? 없다. 기분은 좋았는데 얻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실재가 없다. 약속은 있는데 얻어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또 고민하게 되었다. 로마서를 보면서 이것이 육에 속한 것과 혼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짐작하게 되었다. 확실히 안 것은 아니지만 그런 구분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 수와 같이 하늘의 별 수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놓았다.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말이 당시로서는 가장 큰 복이다. 부족들이 사는 세계이니깐 씨

족이 많은 사람이 땡이다.

내가 섬에 살아보았는데 동네마다 가면 터주대감 씨가 있다. 김씨, 전씨, 이씨 등이 있다. 그 동네에 맨 처음 들어온 개척자다. 무주공산이었으니까 그 땅을 자기가 다 차지 하여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었다. 그 뒤로 들어오는 성씨들은 땅이 있어도 저 변두리 땅밖에 없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기까 이 사람들이 처음 들어온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살던 곳도 김씨들이 주동을 하고 있다. 동네 뒤가 전부 밭인데 좋은 밭은 전부 그 사람들 밭이다. 자손이 4~5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자손들이 다 갈라서 가지고 있다. 자식들에게 분배를 한 것이다. 그 사람들이 왕 노릇하고 텃새도 그 사람들이 한다. 우리는 객지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말할 때는 '객지것들'이라고 했다. 제주에 가면 '객지 것들'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육지 사람들은 섬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섬놈들'이라고 하는데 섬 사람들은 육지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 '객지 것들'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제주에서는 육지로 시집을 가면 '육지 것들'에게 시집을 갔다고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한다. 터주대감들이 있다.

지금도 제주도 개발이 잘되지 않는 것이 그런 터주대감들 때문이다. 개발하려고 하면 반대를 한다. 개발하면 뭘하냐? 육지 것들이 와서 다 가지고 간다고 생각한다. 호텔을 지으면 뭘하냐? 육지 것들이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오락시설도 육지 것들이 다 돈 벌어 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있다. 특별자치구 국제도시든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지만 잘 못하고 있다. 원주민들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씨족이 없이 왔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씨족이 많은 것이 큰 축복이다.

밥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너무 많은 것이 저주였다. 결국은 돈 벌러 가느라고 밤 붓짐 싸서 서울로 올라오곤 했다. 1년 내 식모살이하고 밥 얻어 먹고 옷 1~2벌 얻어 입으면 전부다. 1년을 일해주었다.

시골에서는 농사 지을 때 머슴살이를 한다. 1년 내 농사를 지어주고 쌀 한 가마니를 받는 식이었다.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다. 식구 한 명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또 식구 한 명 데리고 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왜? 농사를 지으려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값이 그것밖에 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일로 따지던 때가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모래 수와 같이 하늘의 별 수처럼 자손을 주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이스마엘로는 안 된다고 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상당히 믿은 것이다.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니까 하갈이라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이다.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100살이 되었다. 이삭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많았다고 되어있다. 후처를 취하였으니 수도 없이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이삭으로 난 자만 네 후손이 된다고 했다.

이삭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그것도 아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다. 축복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다.

우물도 자기가 직접 판 우물은 없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서 썼던 우물이 쓰지 않으니까 폐쇄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다시 수리해서 쓴 사람이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후사가 될 것이다. 이삭이 너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이삭의 후손이다. 이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이삭을 아느냐고 하니 이삭을 모른다. 아브라함은 아느냐고 하니 아브라함은 안다고 한다.

아브라함 후손은 이스마엘 후손이 많다. 지금 아랍인 전부가 이스마엘 후손이다. 지금 이스라엘만 이삭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의 진짜 조상은 이삭이다.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모리야 산으로 가지고 하니깐 그냥 가는 사람이다. 묶어놓고 잡으려고 하니깐 그냥 있었던 사람이지 소리 한 마디 질렀다는 말이 없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쓸모가 있겠는가? 어디 가서 밥이나 제대로 얻어 먹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말할 때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삭을 축복했다고 한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삭에게 축복을 주었다고 한다.

늘 도망을 다녔는데, 피해 다녔는데 블레셋에서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이니 우리를 침략하여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달라는 것이다. 자기들이 침입해 와서 ~.

지금 우리나라도 김**이 와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며칠 후에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김**이 갑자기 돌아서서 당신들이 축복을 해주어야겠다고 침략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달라고 하면 만사가 다 해결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복을 받은 줄 알면, 우리가 잘사는 것을 보여주고 돌아오게 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잘사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오히려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나와 버렸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다. 비대칭전략이라고 전혀 상대할 수 없는 전략이다.

블레셋은 늘 뺏고 뺏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다 뺏을 수 있는 사람인데, 갈수록 더 창대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 진짜로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던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드문 일이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놓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아들을 통해서 축복하기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다. 이 아들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은 온다.

수원지는 다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파이프가 없어서 물이 오지 않는 것이다.

내가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 산 중에 이사 오면서 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좋은 산 중에서 물 걱정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물이 없는 것이다. 동네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비밀한 곳에 물탱크를 만들어놓고 자기들만 먹지 물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군에서 물을 주려고 관을 3개를 뚫었다. 그런데 물이 다 먹지 못하는 물이다. 물을 지게로 저다 먹을 뻔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수도가 들어올 때까지 그 누런 물을 퍼서 정수장치를 하여 정수하여 먹었다.

우리 집 밑이 옛날에 중석광, 텅스텐광이었다. 뚫으면 그 빈 공간이 나와버리고, 그 광속에 갇혀 있던 물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 물을 먹겠는가? 물탱크에 받아놓으면 텅스텐이 끼어서 물탱크 안이 새까맣게 된다. 그 물을 정수하여 몇 년 간 먹었다.

통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올 수가 없다.

통로를 구하느라고 별 짓을 다했다. M*C에 연락하여 방송도 하고 박** 사무실을 찾아가서 진정도 했다. 방송사에서도 왔다 가고 신문사에서도 다 왔다 갔는데 안 된다. 수도국에서 해주지 않았다.

우리 동네 집은 약 열 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보고 먼 파이프를 연결할 수 없다고 해주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1Km까지 물이 왔다. 그런 데도 해주지 않았다. 우리 동네까지 파이프가 들어오려면 약 3억이 들어간다고 한다. 천신만고 끝에 수도관이 들어오게 되었다. 수도물이 콧물처럼 나오는데 기적 같았다.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온 것과 똑같다. 지금도 물을 쓰다 보면, 아이고 어떤 물인데 하는 그 생각이 난다. 아무리 수도국에 물이 많아도 관이 없으니까 물이 오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있어도 이삭이 없으면 축복이 올 수 없다.

수도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열면 물이 나오게 되어있다. 물이 와서 항상 먼저 대기하고 있다. 내가 열기 전에 수도물이 먼저 와 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안식인가!

하나님은 지금 축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를 그분이 찾고 있다. 우리는 아예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만 구하고 있다.

땅을 파서 관정을 뚫고 세 군데나 뚫어놓았다. 우리 집 터 안에도 하나 있고 세 개가 있다. 다 먹지 못하는 물이다. 수도국에서 파이프가 와야 되는데 땅속을 파면 팔수록 누런 물밖에 나오지 않았다.

종교적인 노력이 땅 파고 있는 노력과 같다. 물은 먹어야 되는데 물은 안 나오니까 땅을 파고 있는데, 그 땅의 물은 먹으면 얼마 못 가서 죽을 물이다. 탱크가 큰 탱크인데 물이 들어오는 데까지 새까맣다. 그것을 사람을 먹으면 어떻게 살겠는가?

심리학적으로, 종교 심리학적으로는 사람의 깊은 밑바탕에는 불안심리가 깔려있고, 공포심이 있다고 한다. 공포심 때문에 종교가 생긴다는 말을 한다. 루터도 인간 밑바탕에 있는 공포심 때문에 종교가 생겼다고 말했다.

옛날에는 달을 섬기거나 해를 섬겼다. 어떤 큰 것, 최대한 큰 것에 의지하면 그런 마음이 안식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상숭배이다.

하나님이 물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다. 두려워 숨는 것이 인간이다. 축복의 통로는 끊어져 버리고 두려운 것만 남았다.

사람은 왜 종교를 갖는가? 두려워서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다. 지금도 아마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옛날에 어떤 사업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옥을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서 지옥 가면 어찌겠는가? 믿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 역시 사업가다운 생각이다. 손해 보지 않으려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두려움이 없다. 블레셋이 와서 뺏으면 내놓고 또 간다. 뺏으면 또 내놓고 간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창대하더라는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기 싫어서 붙잡고 싸웠다. 왜냐하면 갈 곳이 전혀 없었다. 마지막에는 죽으면 죽지 할 수 없지 더 이상 못 잡겠다 하여 놓았던 것이다. 길이 있어서 놓은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놓았다.

그런데 딱 수도 파이프처럼 물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때 수도꼭지를 열고 보니까 내가 왜 그 짓을 하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축복의 길이 있었는데, 왜 내가 모르고 거기서 발버둥을 쳤던가? 이 생각이 드니까 사람의 마음이 확 풀어져 버렸다. 맏혀 있던 원한이 싹 어디로 가버리고 없었다. 축복을 얻게 되면 한방에 날라가 버린다.

인생에 대해서 원한이 있는 사람이나 불만이 있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 없어서다. 복이 오면 눈 녹듯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다.

내가 제일 미워했던 사람, 교단 총회장에게 편지를 썼다. 참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한 것 같았다. 회담할 필요도 없고 흥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 해방시켜주어 버린 것이다. 거기서도 편지가 와서 자기도 미안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것으로 그 사람과 나는 끝났다. 그렇지 않았으면 평생 원수처럼 살았을 것이다.

그 뒤로 내가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복이 와버리니까 그 사람 원망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 이러려고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 사람을 내가 고생시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히10:30).”

원수 갚는 것이 자기에게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지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안 되었다. 현실이 닥쳐 있으니까 도저히 잊혀지지 않았다. 기도하면 그때만 없어진 것 같다가 현실이 그대로 있으니까 도로 잊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축복이 와버리니까 어디로 날라가 버리고 없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이렇게 완전하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 인간이 해결하려면 어떻게 했더라도 화해를 했거나 뭘 했든지 간에 역시 찌꺼기가 남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내 마음에도 없어져 버리고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자유롭게 되지 않겠는가? 자기도 100% 잘했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늘 찝찝했을 것이다. 내가 풀어주니까 자기도 다 풀어졌다.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세상의 차원과 다르다.

실사 내가 거기서 노력하여 성공했다고 하자. 노력하려면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그러면 또 고생한 것이 한이 된다. 나는 전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물이 준비되어 있어서 수도꼭지만 트니까 물이 칼칼 나온다.

이삭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삭은 가는 데마다 창대해지더라는 것이다.

이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이삭이 되겠는가? 야곱은 혹시 어떻게 비슷하게 따라 간다고 할 수 있지만 이삭은 흉내 낼 방법이 없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낳은 아들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흉내 내어서 이삭이 되겠는가? 이삭 자신도 그렇다. 자기가 어떻게 나온 아들인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억지로 이삭이 되려고 한다고 되겠는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맥락에서 보게 될 때는 이 길이 그 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 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 분이 아실 것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에 찾아오셨다. 이삭

이 밀려 날 때마다 찾아 오셨다. 야곱이 머리를 굴릴 때마다 찾아 오셨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는가? 마지막에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리고 모세가 80살 먹었을 때 찾아 오셨다.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 오셔서 예수가 나왔다. 이것이 모두 같은 한 통로이다. 이스마엘 이후에 이삭이 날 때까지 통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왔다. 이삭이라고 봐야 한다. 구약의 이삭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들이라고 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9).”

아들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들을 통해서 흘러온다고 한 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아들과 연결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말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최후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았다. 믿음도 갖고 해서 간신히 간신히 유지를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와 하나되는 길, 이것밖에 없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생활을 한다고 해도 불안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종교적으로 노력해도 이 길을 면할 수가 없다.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은 생활이 아주 건전하다. 우리 교단에 왔던 선교사가 웨슬레안 쪽으로 점진적인 선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때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어떻게 사람이 성결해지는가 하는 사상을 갖고 있을 때이니 까 요한 웨슬레가 쓴 <그리스도의 완전>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내가 항의했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 1시간 내내 토론 하였다. 안 된다.

이 선교사와 내가 얼마 동안 동력을 했었다. 내가 있던 교회에 와서 주일 설교를 하고 다른 것은 다 내가 하고 협동을 하였다. 집에 가봐도 그렇게 정말 경건한 생활을 한다. 아이들도 둘인데 그때 유치부를 다녔는데 교회오면 딱 옆에 앉혀놓는다. 1시간 동안 조용하고 아이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집안에서의 생활도 그렇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깨끗하고 훌륭하게 산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아무리 그래 보았자 역시 견우와 직녀처럼 만나지 못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 예수와 하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하나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아는 예수는 누구인가? 처녀로 잉태된 사람이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사람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람인데 이런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우

리는 그 사람을 본 받아서 애를 썼다. 그것이 되겠는가?

뱀새가 황새를 본 받아서 되겠는가? 도저히 안 될 일을 했다. 평생 예수 믿고 교회 가고 기도 해 보았자 아무리 해 보았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나는 내 힘만큼은 해 보았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되고 40일 금식기도를 해봤는가 뭐 해봤는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힘만큼은 했는데 안 됐다.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다. 늘 한탄했다. 마지막에 가면 믿음이 모자라서 목숨 걸고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것만 항상 남았다. 항상 후회가 남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항상 그것이다. 조금 더 하는 것을 못하겠더라.

서양사람들은 동양사람들 보다 의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할 때 목숨 걸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40일 금식기도도 별로 목숨 걸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미군부대 근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키리졸브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되면 꼬박 잠을 자지 않는 데도 끄떡 없다고 한다. 졸린 사람이 없다고 한다. 한국사람은 체력을 못 견딘다고 한다.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금식기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를 것이다.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아도 정말 놀랍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프리카로 어디로 가서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놀랍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따라 갈 수가 없다. 설사 따라 간다고 해도 하늘이 나만큼 높듯이 그 사람 대로 항상 모자란다. 어렸을 때 뒷동산이 있었는데, 밑에서 보면 뒷동산 바로 위에 하늘이 있는 것 같지만 올라가 보면 없다. 그런 것과 똑같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나 의지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하늘 높이는 똑같다. 하늘에 올라 가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 항상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고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없다.

그런데 그 예수만을 열심히 따라 가고 있고 찬양하고 있으니 종교로서는 좋은 종교가 되지만 나는 곤고하다.

나는 십자가를 지나갔는데 나에게 골치거리였다. 왜냐하면 도저히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6.25때는 어렸는데 혹시 공산당이 와서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실제로 내 앞에서 뻔히 죄 없는 사람이 총살 당하는 것을 보았다. 꼭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없지만 15살 정도 먹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은 살았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

한 20~30명이 바닷가에 앉아있었고, 그 사람을 내놓고 누가 이 사람을 보증하겠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못했다. 지금도 나는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 그때 내가 많이 어렸더라면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한 사람이라도 누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은 살았다. 이 한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었다.

나는 그렇게 용기도 없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예수를 따라 가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겠는가? 그것도 질만한 사람이 지지 아무나 질 수가 없다.

순교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다. 6.25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잡아놓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고 물을 때 안 믿는다고 하면 살고, 믿는다고 하면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고 죽는 사람이 있었다. 보통 일이 아니다. 부럽기는 하지만 나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십자가가 골치 아팠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것이 믿기지 않았다. 이것이 또 골치 아팠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부담이 되었다. 그것을 질 수 있어야 찬양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내가 살 길을 찾았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쉽다. 거기에 오니까 십자가가 쉬워졌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한 자리에서 십자가를 졌는데, 나는 그것을 따라 가려고 하니 못하겠더라. 본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못하겠더라.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뛰어내리지 못한 한 인간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유일성의 문제인데 다른 사람도 십자가를 진 사람이 많다. 거기서 보여진 것이 아니고 바람을 잔잔케 했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이다.

내가 100일 기도로 금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자라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자리에 가보니까 뛰어내리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처음에 나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와 싸우는 것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했다.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말하면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반박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될 일이 아니다. 성경구절을 본다고 되겠는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다고 해서 되겠는가? 그것이 유치한 이야기이다.

그때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는 예수를 알았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구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았다. 그때는 십자가까지는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그것까지는 알았다.

십자가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같은 사람인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예수는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 같은 면이 있지만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람이다. 신이 매달린 것이 아니다. 인간이 매달렸다. 그 인간은 뛰

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쩌면 나와 똑 같은 사람이다. 나는 거기서 잃어버렸던 나, 내가 모르는 나를 찾게 되었다. 나도 모르는 나다. 나는 뭔가 그래도 남아 있는 사람인데 그 남아있는 것이 여지없이, 내가 설사 100일을 금식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나는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인간이구나. 이것이 사람의 위치이구나. 이것을 알고 나니까 그분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어졌다. 간격이 없어지니까 나는 너무 편해졌다. 지금은 그런 두려움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가? 나는 왜 저렇게 못하는가? 그런 것이 없어졌다. 나만큼 해도 나는 진실하다. 그래서 남은 것은 이것이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이다. 지극히 간단하고 너무너무 사실적인 것인데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너무 비밀스럽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걸린다. 아니 예수를 그렇게 비하시킬 수가 있는가? 아예 이렇게 틀어버린다. 얼마나 세뇌가 되었으면 그렇게 듣겠는가? 세뇌가 되지 않은 사람 같으면 당연히 그렇지, 보통 자연인 같으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들을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듣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 아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듣는다.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십자가 사건도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일 때, 떡은 얻어 먹어서 좋지만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따라 간다고 애를 쓴다.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있지만 본 받아 지는가? 본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노력한다는 것과 둘이 하나 되는 것은 아주 다르다. 노력을 해서 90% 되면 만나는 것인가? 노력을 해서 90%가 되면 못 만나는 것인가? 그것이 전혀 아니다. 차원이 전혀 다르다. 만나고 못 만나고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고 길이 다르다. 50% 가서 못 만나는 것은 100% 가도 못 만난다.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

길이 틀리다. 가는 길이 틀리다. 생명나무의 길과 선악을 알게 하는 길은 길이 다르다. 노선이 다르다. 호남선을 타고 아무리 빨리 달려보아도 부산을 갈 수는 없다. 경부선을 타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목포를 갈 수는 없다.

길이 틀린 데 어떻게 도착하겠는가? 길은 모르고 열심히 가면 된다, 좋은 방법으로 가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이다. 세상이 전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열심히 정성껏 최선의 방법으로도. 이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길이 있다.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과 다르다. 길이 천국 가는 길과 다르다. 천국에 간다

고 하면 그 길에는 천국이 없다. 그 길의 종착역은 다른 길이다. 그 길의 종착역은 바벨론이다.

노선이 다르다는 것은 모르고 노력해보았자 헛일이다. 노력을 더 하면 더 안 된다. 부산을 가려고 출발한 사람이 더 빠른 기차를 타고 다른 노선으로 가버리면 더 빨리 다른 곳으로 간다.

나는 그 후로 기독교에서 영향을 끼쳤던 기라성 같은 사람이 많은데, 외람되지만 제대로 갔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결정적인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위대해서 교회가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스럽지만 교회가 안 된다.

교회는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가 된다.

내가 아는 한의사 한 분이 계신데 내가 지금까지 많은 한의사를 만나보았지만 그분만큼 재주 있고 그분만큼 명백하게 아는 분을 처음 만났다. 만일 지금 만난다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젊은 날에 만났다. 그때는 그분의 손이 아니었어도 살만한 때였다. 지금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너무 아쉽다.

내가 환자를 많이 데리고 갔다. 어떻게 진맥을 하고 감추어진 병을 알아내느냐는 것이다. 너무너무 재주 있는 분이고 글씨가 우리 집에도 있는데 아주 명필이다. 살아있는 추사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분이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들도 싫어한다. 며느리도 아들과 이혼하고 가버렸다. 막내 딸이 있었는데 그 딸마저도 아버지를 싫어한다. 마지막에 그 집에 방문해 보니까 아파트에 혼자 계셨다. 딸도 아버지가 싫으니 밤 늦게 들어온다는 것이다. 무엇을 먹고 사는가? 입구에 보니까 짜장면 그릇이 쌓여있다. 짜장면을 시켜 먹고 살다가 돌아 가셨다.

그분의 말이 참 이상한 일이라고 하면서 나는 왜 사람이 없는가? 이목사라는 사람에게서는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은가? 이 의문을 갖고 돌아가셨다. 똑똑하기로 말하면 그분만큼 똑똑할 수가 없다. 머리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세계 한시 대회에 나가서 장원을 했다고 늘 자랑하였다. 한시 대회는 우리나라, 중국, 대만, 일본이 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장원했다고 자랑하셨다. 병풍 한 짝을 얻었는데 불교에 관한 글이다. 필요가 없어서 표고를 하지 않았는데 글씨가 하도 좋은 글씨니까 언젠가 팔아먹어야 될 것 같다. 인재로 보면 너무너무 아까운 분이다. 그런데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길과 사람이 원하는 길이 서로 다르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원했다. 이스마엘을 내보라고 할 때 밤새 고민했다는 흔적이 나온다. 창세기를 읽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내보내라. 내가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겠다고 하여 겨우 물자를 만들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다고 한다. 인정 상으로 그렇지 않겠는가? 자기가 하갈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라고 하니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한다. 무슨 말인가? 밤에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환에게 나무를 지워서 데리고 갔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내놓는 것은 쉬운데, 자기가 만든 것은 내놓기가 어렵다. 사람이 자기를 헌신하거나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 복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짐작이 간다. 전혀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는 사람이 있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내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는 사람은 어디에 쓰던지 상관없다. 차이가 확 난다.

내 힘으로 하지 않은 것은 내 공로가 없다. 내 공로가 없으니까 뒷 그릇 챙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힘으로 내놓은 것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챙길 것이 있다.

만일 내가 내 힘으로 목회를 해서 내 힘으로 교회를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 힘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스마엘이다. 나는 받은 은혜로 했어야 그냥 감사가 된다. 받은 은혜로 했어야.

이스마엘을 내놓을 때와 이삭을 내놓을 때는 완전히 딴 판이다. 축복의 통로가 이렇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이삭과 연합하는 길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 이삭과 내가 하나 되는 길이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길이다.

바울 서신의 요점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이다. 거기에 있는 축복 전체가 <In Christ>이다. 그것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안 된다.

이것이 카톨릭에 와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전부터 그렇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두 법리적인 것으로 공부를 해버렸다. 하나님의 축복도 전부 법리적인 것으로, 구약의 옛 법에 근거해서 법리적으로 해석했다.

구약의 염소나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려도 늘 해마다 제사를 되풀이 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시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 구약의 방법으로 해석하니 염소나 송아지 피보다 예수의 피, 하나님 아들의 피, 사람의 피니까 효과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가 아니다. 신약으로 넘어온다는 말은 법리에서 생명으로 넘어온 세계이다. 법에서 생명으로. 염소나 송아지 피와 예수의 피가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다.

예수께서 속죄를 이루셨으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함께 속죄가 된다. 속죄를 하면 따라 죽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법리적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고 의롭다 함을 주고 거룩함을 주고 구속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말이다.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지혜로우면 나도 그 지혜가 분배되는 것이다.

내가 오늘 밥을 먹고 힘이 났으면 손에도 힘이 있고 발에도 힘이 있지 그 힘을 다른 데 뺏다가 그 힘을 다시 나에게 주는가? 먹었으니까 힘이 생긴 것이다.

신약은 성육신의 복음이다. 말씀이 육체가 된 복음이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말이지 법리적이라는 말이 전혀 아니다.

기독교 교리를 법리적으로 해석하니까 구약이나 매 한가지이다. 염소 피보다 송아지 피가 낫다. 벌금을 100만원 내는 것보다 천만원 내는 것이 낫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 없다.

행위를 부정하고 <믿음으로>하고 개신교가 나왔다. 그 믿음이라는 조건으로 또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 몸이 안 되면 같이 공유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힘이 좋다고 그 힘을 나에게 줄 수 있는가? 줄 수 없다.

같은 자리에서 똑 같은 음식으로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은 힘이 100키로가 나오고, 나는 힘이 10키로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사람이 100키로에서 남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가? 못 준다. 그 사람이 밥 잘 먹고 힘이 많이 생겼다고 나에게 줄 수 있는가? 잉여공유설이라는 것이다. 있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먹은 것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내가 먹은 것은 내 것이다. 내가 그 사람 같은 힘을 쓰려면 그 사람과 한 몸이어야 된다. 몸이 하나여야 가능하지 몸이 두 개면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얻으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려면 법리적으로 될 수가 없다. 내가 그분과 하나일 때만 내 것이다. 그분과 하나일 때만 공동 소유로 하는 것이다.

바울 서신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오해될 부분이 많다. 법리적으로 해석할만한 그런 곳이 많다. 속으면 안 된다. 속이려고 써놓은 것이 아니고, 이해시키려고 써놓은 것이다. 잘못하면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약은 모두 약속이다. 법리이다. 그렇지만 신약은 약속이고 법리인 것이 없다. 하나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제자들을 보라. 3년 반을 예수를 따라 다녔다. 그런데 갈라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다. 도로 고기 잡으러 갔다. 아무것도 없다. 만일 배운 것이 있거나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서도 얼마나 종교생활을 잘 하겠는가? 나는 예수를 목격한 사람이라고 깃발을 세워보라. 찾아올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고기 잡을 것 밖에 남지 않았다. 원래 고기 잡던 사람들이다. 허무하다.

만일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려고 했으면 종이 호랑이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보면 나에게서는 아무 것도 없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그것이 신약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따로 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 지혜를

주고 의로움을 주십시오 하면 의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다르다. 돼지는 돼지고기 밖에 주지 못하고, 소는 소고기 밖에 주지 못한다. 자기가 누린 축복을 소는 소에게만 줄 수 있고, 돼지는 돼지에게만 줄 수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내 축복이 되려면 나는 그와 연합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것이 축복의 완전한 통로이다. 다른 데 빛나갈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

개가 되면 짚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개이기 때문에 짚는 것이니까. 소가 되면 건초를 못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 답답하고 이해를 못한다. 바짝 마른 풀을 하루 종일 씹고 있다. 개워서 또 씹고 개워서 또 씹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이 걸린다고 한다. 병 이름은 모르겠는데 소 가족이 부풀어지는 병이 있다. 가족이 툭툭 불거지는데 칼로 찌르면 피식하고 공기가 나온다고 한다. 그냥 놔두면 소가 결국 죽는다고 한다. 건초를 먹지 않으면 피부와 살이 분리되어 죽는다고 한다.

이 소를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바짝 마른 풀을 하루 종일 씹어 먹고 있는데, 무슨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건초만 씹고 있겠는가? 소는 살려고 먹는 것이다. 우리가 그 생리를 배울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계약할 수도 없는 일이다. 소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은 계약으로 안 된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축구공 받듯이 받아서 쓸 수가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날에는 알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우리 안에서 그 예수를 찾으려고 하면 힘들다. 많이 해봤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면 훨씬 쉽다. 나는 자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보라고 한다. 훨씬 쉽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나다. 그 사람은 내가 잃어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지만 아담 이후에 아무도 그 사람을 모른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 엉터리가 대부분이고, 있다고 해도 깜짝 속기에 딱 맞다.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거나 자기 안에 성령이 움직인다고 하거나 자기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럴 듯하지만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다.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모실 수가 없다. 여러분도 다 많이 해보셨을 것이다. 얼마나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싶었는가? 의자까지 그려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앉힌다. 하나님을 거기에 앉힌다. 가능한가? 안 된다. 하나의 상징이다.

그런데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은 아주 쉽다.

잠자다가 일어나도 거기에 있고, 시장에 갔다 와도 거기에 있고, 밥 먹고 나도 거기에 있다. 어디를 가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어디로 가버린다. 어떤 때는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가버리고 없다. 그러면 헛것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상숭배이다.

요한1서 5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요일5:20).”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이 있다.

“그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시라(요일5:20).”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는 것이다.

그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 좀 곤란한데, 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니까 추상적이었다. 예수는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이다.

구약에도 성막이 왜 필요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필요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실제로 임재했기 때문에 필요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 그러면 장막이 되었다는 말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재(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고 했다.

요한1서 5장 20절에는 아주 결정적인 말이 있다. “그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시라(요일5:20).”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확실하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요일5:21).”고 했다. 그것 아니면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말이다. 마지막 구절이 가장 중요한 말이다.

예수가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라는 뜻이다.

꿈에 보였거나 속에서 말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자기 속에서 말씀 하신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영락없이 속기에 딱 맞다.

물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상호 내주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아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것이 쉽다. 그리고 정확하고 확실하다. 흠 날 것이 없고 고장 날 일이 없고 빗나갈 일이 없다.

그 안에 있는 나!

자고 일어나도 거기에 있고, 시장을 갔다 와도 거기에 있고, 심지어 누구와 싸우고 와도 거기에 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는 없는데~ 싸울 때는 내 안에 없다. 싸우다가 와도 그 안에는 내가 있다. 이보다 더 안전한 길이 어디 있는가.

“그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시라(요일5:20).”고 한다.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는 그 말

이다.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라고 한다.

영생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그것이 영생이다.
그 안에서, 모두 그 안에서, In Christ.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말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한 후에 예수를 만났다. 요한은 예수가 살았을 때 만났다. 그분의 말은 예수가 항상 앞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

바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더 많이 나오고, 요한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온다. 예수를 만난 대로~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요일5:20).”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요일5:21).”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는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우상숭배를 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우상을 섬겼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똑 같다. 보지 못하니까 상상할 것이다. 보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로 만나지 못하니까 상상하게 된다. 머리 속에서 상상하고 가슴 속에서 상상하고 모든 상상을 하여 자기는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

요즘 기독교인들을 만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람이 많다. 옆에서 듣고 있으면 민망하다. 주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신다고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시키면 제대로 될 것 같은가? 말할 때는 도로 자기가 말한다. 설사 속에서 시켰다고 하더라도 말하는 것은 도로 자기이다. 사람은 자기 외에 다른 것을 말할 수 없다. 속는 것이다.

축복의 정확한 통로는 예수이다.

구약에서 이삭이듯이 정확한 통로는 예수이다.

어떤 예수가 정확한 통로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가 가장 정확한 통로이다.

우리 집에는 수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열면 물이 나온다.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다니면 되는가? 어젯밤에도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마시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수도꼭지는 언제든지 열면 물이 나온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주님이 하시기를 원한다.